

최우수상 수상작

또 다른 내일, “유레카”의 기쁨을 찾아서

2022년 가을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해 커피 한잔을 마시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다. 문득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온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가야 할까라는 고민부터 바쁜 회사 생활을 핑계로 책과 배움을 멀리한 그간의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된다.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고 지식의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던 찰나에 그동안 쉬었던 학업에 도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리고 학업에 다시 도전하면 어디서,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생겼다. 먼저 전공부터 찾기로 했다. 학부 시절 어문학을 전공했던 나로서는 비교적 선택의 폭이 넓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학원은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터라 이왕이면 어문학과 경영학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 바로 무릎을 '탁' 칠 수 있는 전공이 눈앞에 '쨍'하고 나타났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해야겠다고 결심이 선 나는 관광경영학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할 대학원 선택기준도 정했다. 첫째는 지명도와 공신력이 갖추어진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일 것, 둘째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면서 수도권과 가까운 것, 사실 수도권과 가까운 것의 조건은 수도권은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학문의 영역을 더 넓혀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도해 주실 교수님들이 무엇보다 중요해 엄격한 선택의 기준이 되었다. 몇 가지 선택의 중요도를 정하고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선택한 대학원이 바로 강원대 일반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이다.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면접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막상 면접 시험장에 들어서니 너무 떨려서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너무도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본 것 같아 실망이 컸는데, 다행히도 시험 결과는 합격이었다. 면접 때의 초라한 내가 되지 않으려고 그간에 틈틈이 공부해 두었던 관광학에 관한 기본과정 공부를 입학 전에 해두기로 했다. 평소 관광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관광경영학과 학부 전공 필수과정을 미리 한국방송대를 통해 관광학 개론부터 관광법규, 관광마케팅, 관광개발론 등의 기본과정을 탄탄히 다져 둔 터라 다시 공부하며 개강 때만을 기다렸다.

3월 드디어 대학원 개강이다. 첫 수업은 월요일 오후 시간이라 다소 여유가 있었다. 개강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막막함이 앞섰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캠퍼스의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기대가 더 컸다. 첫 수업 시간은 관광 시장사례인데, 다행히도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 수행해야 할 연구과제가 엄청났다. 첫 학기라 가벼운 마음으로 다가섰는데 가볍지만 많은 것 같은 현실감이 엄습해 왔다. 전공 3과목과 이번 학기 때부터 새로이 개설된 연구윤리를 포함한 4과목을 신청했는데, 나머지 과목들도 논문 작성을 위한 훈련과정의 일환이었다. 입학하기 전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혹독한 훈련과정을 거치는지 몰랐었다. 첫 한 주가 지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가운데 이러다가는 낙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정신을 차리기로 했다. 먼저 논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겠다는 생각에 e-러닝을 통한 논문 작성법부터 배우기로 하고 2개월 과정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그 과정을 마치고 나니 조금은 논문 작성에 대한 기본 지식이 쌓이게 되었다. 다음은 논문 쓰기의 기본인 통계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해 Excel과 SPSS 과정을 신청해 배우고 정리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에 나오는 용어가 너무도 생소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열심히 정신 차려 듣는다고 했는데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학업의 과정은 포기과 자신과의 싸움인 것과 같다. 내가 좋아서 선택한 길인데 한 학기도 못 버티고 포기한다면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한 학기만이라도 당당히 버티기로 하고 마음을 다잡고 하루, 일주일, 한 달, 한 학기 계획을 세워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3과목의 전공수업 모두 한 학기 동안 수행해야 할 과제로 소논문 작성하기였다. 논문 쓰는 것이 버거웠지만 학문적 성취를 위해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먼저 논문의 기본 형식인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분석 결과, 결론 및 제언 등으로 이어지는 틀을 머릿속에 되새기고 e-러닝에서 배운 것과 접목해 작성해 나갔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주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제는 그동안 내가 일해왔던 주변에서 찾기로 하고, 나는 고속도로와 맺은 인연으로 교통과 접목된 관광 분야 연구를 주제로 정했다.

연구 주제를 정하고 난 후 이론적 배경이 될 만한 논문을 검색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논문을 위한 자료 찾기는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교육(Web of Science)에 참여했다. 자료 검색 교육을 받고 나니 세상의 문이 활짝 열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학교 도서관에 앉아서 국내외의 다양한 논문과 외국의 유명한 학술지에 실린 수준 높은 논문들을 볼 수 있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뿌듯함이 들었다. 학교 도서관은 중앙도서관과 미래도서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나는 새로 지어져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자랑하는 미래도서관을 주로 이용했다. 미래도서관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탁 트인 쾌적한 공간으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서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풍경은 세상의 진리를 생각하게 해주었다. 미래도서관에 있으면 공부하고 싶은 동기가 저절로 생겨 항상 기분이 좋다. 자료를 검색할 때면 마음이 설렌다. 과연 내가 연구하고 싶은 분야의 선행연구가 있을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고는 하는데 내가 찾으려는 선행연구 자료를 찾았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 선행연구 자료를 찾아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발품을 팔아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다. 바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서 작성과 설문 응답서를 받는 일이다. 설문서 작성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앞선 연구자의 마음을 읽고 교감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 같아 즐겁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는 내가 궁금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것일까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 같아 항상 조심스럽다. 설문 초안을 작성하고 수정하기를 반복한다. 마지막 설문지를 완성하고 실제 응답서를 받으러 현장에 가서 응답자와 마주하면 긴장하게 된다. 응답자가 받아 든 설문서에 오타자는 없는지, 설문서 내용은 연구목적에 잘 부합이 되는지 등등 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 같다. 첫 설문을 받고 이제부터 연구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설문서 한 장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준다. 그동안 나도 남들이 요구하는 설문서의 빈칸을 채웠지만, 때로는 귀찮고 바쁘다는 핑계로 성실하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니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나에게 설문지를 채워준 분들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설문과 더불어 인터뷰도 해야 했다. 인터뷰는 녹음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중요하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어 쉽지 않은 과정이다. 나는 모두 6명으로부터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 사람당 1시간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결과물을 글로 정리해 보니 얼마 되지 않은 내용과 결과물에 실망하게 된다. 그러나 나의 연구 논문을 위해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설문과 인터뷰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 이제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할 시간이다. 처음 사용하는 낯선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진다. 그래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간에 배운 얇은 지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기로 하고 설문 응답지를 토대로 데이터를 차근차근 입력해 가던 중 다행히도 교수님께서 통계 프로그램 교육(연구방법론_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과 적용 교육)을 마련해 주셔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었다. 부족했던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채운 후 데이터를 입력해 보았다. 과연 데이터 결과가 제대로 나올까 하는 걱정 반 기대 반의 심정으로 마지막 엔터키를 치고 결과를 기다리니 짠하고 결과값이 나왔다. 나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그 옛날 아르키메데스가 외쳤던 “유레카(Eureka)” 바로 그 순간이다. 이제 첫걸음마를 댄 것에 불과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구 성과물이지만 나에게게는 앞으로 연구 성취를 위한 동기여서 너무도 기분 좋은 출발이었다. 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분석을 실행하는 과정 또한 만만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순간의 기쁨을 간직하며 앞으로 연구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두박두박 걸어가기로 했다.

첫 학기가 주는 설렘이 있다면 좌충우돌한 경험도 많다. 대학원 과정은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한 발표가 많다. PPT 작업은 늘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수정과 고침의 연속이다. 발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정이다. 첫 번째 발표 시간이라 더 예쁜 글씨체를 찾고, 표와 그림, 색상 하나 하나에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 그런데 막상 발표 시간에 띄운 PPT는 글씨체가 깨져 버린 것이다. 내 컴퓨터와 학교 컴퓨터의 사양이 서로 맞지 않아 충돌이 일어난 것이다. 너무 속상한 마음에 어떻게 발표했는지도 모르고 당황하다가 끝나버린 느낌이다. 또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퇴실할 때 이용한 좌석을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처리를 하지 않고 퇴실해 버려 한 달 동안 도서관을 이용 못 한 속상한 경험도 있었다.

좌충우돌의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을 맞았다. 다음 학기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 여름방학에는 평소에 부족한 공부를 위해 한 달간 세루로 영어 어학연수를 떠났다. 어학연수는 하루 8시간씩 스파르타 과정이었는데, 초등학교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모였다. 어학원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이어지는 수업과 과제로 정신이 없었다. 영어를 배우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만들고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과정 하나하나 만만한 것이 없었다.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프리젠테이션 시간에는 늘 긴장의 연속이고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는 한계와 부딪혀야 했다. 주중에는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관광경영학 전공 공부를 위한 주변 여행지를 둘러보고 앞으로 연구에 대한 구상을 이어 나갔다. 지역 밀착형 관광, 공정 여행,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찾고자 지프니를 타고 재래시장과 로컬 식당을 찾아 현지인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했다. 어학원에서는 아침 4시에 일어나 도서관에서 복습과 예습을 하고, 방과 후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너무 무리했는지 과정이 끝나기 며칠 전 대상포진에 걸려 심하게 고생했다.

꿈 같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2학기에는 전공과 더불어 타 학과 학문 분야에 도전하고자 스토리텔링이라는 다소 생소한 과목을 신청했다. 강원대 대학원의 강점은 전공과목이 많다는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맘껏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과 같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수업에 참여하니 더 풍부한 학문의 영역이 생겨나는 것 같았다. 한 학기 동안에 대한 과제도 주어졌다, 스토리텔링 한편씩 쓰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다. 차근차근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 스토리텔링 요소들을 찾아 주제를 정하였다. 내가 선정한 주제는 천연기념물인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였는데, 현장 답사와 기초자료를 수집하면서 내가 사는 지역에 이렇게 아름답고 수려한 관광지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800여년간 은행나무가 살아온 흔적을 찾아 스토리를 입히니 그럴듯한 작품 하나가 완성되었다. 한 학기 마무리는 그동안 해왔던 작품에 대한 발표이다. 나는 정성스레 완성한 나의 스토리텔링을 발표하기 위해 밤새워 PPT를 만들었다. 작품을 완성했다는 뿌듯함과 더불어 빨리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다. 발표하는 날 설레는 맘으로 PPT를 열어 내가 만든 스토리를 발표했다. 교수님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같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아 열심히 한 보람을 느끼고 다시 한번 공부할 힘이 생겨났다. 나머지 전공과목도 설문서를 작성하고 설문 응답을 받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 흥겨운 가을 축제장에서 축제를 즐기는 분들을 붙잡고 설문을 받으려니 죄송스럽기도 했으나, 설문지 한 장 한 장 채워 갈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소중한 나의 데이터가 쌓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힘든 줄 몰랐다. 설문지를 수집해 데이터를 PC에 입력하고, 통계 프로그램을 돌렸다. SPSS, Amos 1년 전에는 용어조차도 생소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는 친숙해진 내 연구의 동반자이다. 빈도분석, 요인분석,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회귀분석 등등 기준치에 부합되어 가설이 채택되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은 고되고 힘들고 스트레스의 연속이지만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새로운 이론을 정립해 가는 과정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나도 세상의 유의미한 존재이구나 하는 자존감도 생겨나고, 내 이름으로 활자화된 흔적을 만들어 냈다는 뿌듯한 자부심도 갖게 된다.

일찍이 공자께서 배움의 즐거움을 말씀하셨다. 배우고 또 배우면 이 또한 기쁘고 즐겁지 아니한가(學而時習之 不亦悅乎).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한계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삶이 우리가 사는 존재 이유가 아닐까.

지난 1년간 대학원 과정을 통해 나의 성장한 모습을 볼 때, 나는 살아가는 진정한 의미를 느끼게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의미 있는 삶의 과정을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내가 소속된 대학원에 관해 장점을 나누고자 한다. 먼저 왜 대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가이다. 학문 탐구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위라는 목표와 학문적 성취라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대학원 과정이 꼭 필요하다. 훌륭한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치면 학문적 완성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강원대 대학원을 선택해 공부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왜 강원대 대학원이어야 하는가는 첫째, 우리 대학원은 인문 사회학부터 자연과학, 공학, 농학, 의약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공이 개설되어 있고, 융복합 학문을 접할 수 있어 학문적 성취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둘째, 국립대학으로 정부의 폭넓은 지원으로 등록금 걱정을 덜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셋째, 지역거점 국립대학으로 지역에 특화된 학문의 영역을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농축산학, 산림환경 분야에서는 국내외 타 대학원 및 연구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연구 성과와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 외국 유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관광학 분야에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강원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대학원의 수많은 장점 중 특히 내세울 만한 자랑이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마크트웨인은 “20년 후, 당신은 했던 일보다 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 실망할 것이다. 돛 줄을 풀어라. 안전한 항구를 떠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 담아라. 탐험하라. 꿈을 꾸어라. 발견하라.” 그렇다. 삶의 의미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평생 배우고 노력해도 부족하겠지만, 나는 오늘도 노력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